글. 병원장 박재만(타대오) 신부

#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 속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교직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병원 공동체에 하느님께서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VISION 2015〉의 마지막 단계인 '병원공동체의 해'를 지내며 전인치료를 지향하는 환대의 병원 공동체를 만들고자 다 함께 매진하여 왔습니다. 교직원들이 한 가족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서로 협력을 위해 힘썼고, '환자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환우들의 치유활동에 더 큰 사랑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 지난해는 메르스 사태와 같은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힘겨운 상황을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해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교직원 여러분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항상 놀라운 잠재력과 강한 정신력으로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면서 이를 극복해나가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의료 환경 속에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주신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직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07년에 〈VISION 2010〉을 수립하였고, 2011년에는 두 번째 비전인 〈VISION 2015〉를 수립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세 번째 비전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수립한 〈VISION 2020〉은 앞으로 5년간 우리 병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새 비전인 〈VISION 2020〉의 슬로건은 '사랑을 드리고 신뢰받는, 'GRACIOUS LIFE & GRATEFUL LIFE PARTNER(은혜로운 삶, 감사하는 삶의 파트너)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VISION 2020〉의 첫 단계로 '환우중심의 전인치료의 해'입니다.

올해 〈PLAN 2016〉의 슬로건은 '사랑을 드리고 신뢰받는,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치료의 동반자(EVANGELICAL HOLISTIC CARE & SERVICE PARTNER)'입니다.

아울러 이를 위한 교직원들의 주요 실천 과제는 전인치료의 재인식, 전인치료에서 감성적 · 영성적 측면의 이해, 전인치료를 위한 의료인의 자세 그리고 전인성숙입니다.

환우중심의 전인치료는 참 치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연민과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아픈 이들을 치유해 주신 모범을 본받아 우리들도 그 분을 따르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직원들 모두가 그분의 치유 활동을 돕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재인식하고 정성을 다해 환우들을 돌보며 봉사해야 합니다.

교직원 여러분 !

올해 우리는 병원 앞 준비된 땅에 건물 신축을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병원 신축 사업을 봄부터 단계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신축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교직원 여러분들의 큰 성원과 기도 그리고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 함께 힘을 합쳐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지금처럼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고한 원칙과 비전입니다.

헬렌켈러는 말하기를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비전은 어둔 밤 뱃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할 지를 밝혀줄 것입니다.

미래는 선택하는 것이고 비전은 미래를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모두 용기와 희망 그리고 비전을 갖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굳은 신념으로 새해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앞길을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화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